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1.5.30.(일)	

책 임 자	금융위 녹색금융팀장 윤 현 철(02-2100-1691)	담 당 자	김 나 혜 사무관 (02-2100-1697)
	산업은행 ESG뉴딜기획부장 최 호(02-787-7851)		안 옥 상 팀장 (02-787-7852)

제 목 :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분과 논의결과

1 행사 개요

□ 지난 5.29일(토)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본 행사에서는 13명의 국내외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19 녹색회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및 유튜브채널(검색: P4G 녹색금융) 등을 통해 녹화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녹색금융 특별세션 개요 >

구 분	주요연사	
개회사	은 성 수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보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대표
	막타 디옵	국제금융공사(IFC) CEO
패널토론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EIB) 총재
	메리 샤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사무국장
	마티나 쳡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 사장
	이 동 결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 용 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마침말/ 폐회사	루이즈 페레이라	국제결제은행(BIS) 부대표
	한 정 애	환경부장관

2 개회사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자금 공급, 여신·투자 대상 기업의 녹색전환 유도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최근 녹색금융이 글로벌 및 국내 금융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그 중 세 가지 격차(3 Gaps)*를 지적하였습니다.
 - * ❶ 펀딩 갭(Funding Gap): 녹색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실제 투자되는 자금 간 격차
 - ❷ 데이터 부족(Data Gap): 개별 기업의 환경에 대한 영향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에 대한 정보 부족
 - ❸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변화 대응 격차(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위기 시 전 세계와 방역물자·경험을 공유했던 것처럼, 한국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기조연설

-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사무총장은 2020년이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에 결정적인 한 해임을 강조하며,
-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6차 회의(COP26)에서 각국이 보다 야심찬 기후대응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히, 선진국들이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원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2050 탄소중립 선언의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 밝히며,
 -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도 적극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재해 예방 및 관리 등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 두 번째로 뢰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대표는 코로나19는 세계경제를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다만,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상당부분이 아직 초기단계(prototype)이므로 금융권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며,
-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에너지 부문에서만 ‘30년까지 1,8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등 녹색 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 및 경기회복 모두에 핵심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세 번째 기조연설자인 막타 디옴 국제금융공사(IFC) CEO는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 향후 5년간 총 지원자금의 35%를 기후효과(climate co-benefits)가 존재하는 사업에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 녹색투자에 대한 민간부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commmercially viable) 투자 프로젝트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 이를 해결하기 위해 IFC가 추진 중인 투자전략(업스트림 전략* 및 혼합금융**)을 소개하고, 개도국내 민간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기 이전 단계(upstream)에 주목하여,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전략

**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상업적 목적의 개발기관 및 민간투자자)의 혼합을 통해 민간 자금이 투자하지 않았을 투자처에 참여를 유도하는 금융

4 패널토론

□ 기조연설 발표 이후 프랭크 리즈버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글로벌 녹색금융의 현주소」, 「기후관련 공시와 녹색투자」, 및 「녹색금융을 위한 공적금융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먼저 야닉 클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은 「녹색투자의 도전과 기회」라는 발제를 통해,
 - 높은 리스크 및 자본조달비용을 극복하고 녹색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시장교정(market fixing)* 및 시장형성(market shaping)** 장치들을 설명하였습니다.
 -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및 기후리스크 공시 확대 등 가격신호를 통해 저탄소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장치
 - ** 최소효율기준(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설정 등으로 녹색투자 수요를 창출하고,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으로 녹색투자 공급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장치
 - 또한, 개도국들의 녹색전환은 '30년까지 26조달러에 이르는 투자 기회를 가져온다고 밝히며, 개도국들의 채무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 (예) 녹색채권 등 저탄소 금융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 부채-기후스왑(debt-for climate swaps, 일정한 기후목표 달성 시 채무 탕감) 등
- 베르너 호이어 유럽투자은행(EIB) 총재는 “탄소배출 제로(zero emission)는 제로섬 게임이 아님”을 언급하며, 국가-공공-민간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EIB는 유럽의 기후은행(Climate Bank)으로서 2030년까지 기후변화 · 환경 · 지속가능 등의 분야에 1조 유로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며,
 - EIB의 모든 금융활동을 파리협약의 목표 및 원칙과 일관*(align)되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 EIB 전체 금융지원의 50%를 기후·환경관련 활동에 배정하고, 나머지 50%도 기후 변화 완화·적응 목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임을 선언('20.3월)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녹색전환은 경제 · 산업구조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므로 대규모 인내자본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 고위험 자본 공급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등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산은은 대한민국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탄소저감 기업을 대상으로 KDB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 5조원 규모, 최대 △1%p 금리 우대, 최대 10년 만기

- 2차전지 · 반도체 · 그린에너지 등 녹색 신산업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4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녹색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메리 사피로 TCFD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TCFD 권고안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 모멘텀을 받고 있으며*, 초기에는 자발적 권고안이였지만 최근 필수요건화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17년 발표 이후, 현재 2,000여 개 이상의 기관(금융회사 1,000여개 포함)이 지지를 선언

- 또한, 금융위 · 금감원, 환경부, 국내 다수 금융회사 등의 TCFD 지지 선언을 환영하며
- TCFD 권고안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표준위원회(SSB) 설립 제안, 지난달 발표된 유럽집행위원회(EC)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한국의 ESG 정보공개 기준 등 전 세계의 기후변화 재무공시 기준의 기반(foundation)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15년부터 ESG 평가를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작년부터 실제투자에 적용 중임을 설명하며,

- 대표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가 한국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그간 쌓아온 지식 · 경험을 기업들과 공유하여 녹색혁신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ESG 공시 확대를 위해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적용중인 책임 투자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22년부터는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위탁 운용사 전체로 확대하고,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그간 지배구조 중심의 주주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주주활동의 범위를 환경 또는 사회문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마티나 쉐 S&P 글로벌 마켓인텔리전스 대표는 개별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평가 및 공시기준은 기업·산업·지역별로 상이한 기후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유연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 ESG 공시표준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부문이 국제표준제정기구 및 각국 정책당국과의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석유화학, 항공 등 탄소저감이 어려운 산업의 친환경적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연 1조 달러에 이르는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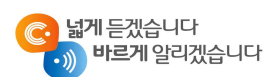
5 폐회사

- 이날 행사는 루이즈 페레이라 국제결제은행(BIS) 부대표와 한정에 환경부장관의 폐회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루이즈 페레이라 국제결제은행(BIS) 부대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기후 관련 리스크에 대해 금융권이 즉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BIS의 그린스완(Green Swan) 개념을 통해,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파국적인 경제·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 금융권이 기후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후 관련 익스포저 분석, 녹색 분류체계(taxonomy) 정비, 혁신적 녹색금융상품 마련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정에 환경부장관은 그린와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녹색분류체계를 마련 중임을 설명하고,
 - 산업은행의 탄소스프레드 프로그램 출시 및 국민연금공단의 국내외 신규화력발전 중단 선언 등 최근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는 일이 없는 포용적 녹색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참석기관	영문(Full name)	설 명
유엔기후변화 협약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현상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92년 리우데자네이루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 상이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선진국의 기술이전 의무 부과 등 국가별 차등화된 기후대응 의무 부과, 매년 당사국총회(COP) 개최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인·경제학자·저널리스트·정치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국제민간회의체 - 다보스 연례 총회 개최, 포럼을 통해 물·에너지·식량 등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진행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은행 그룹의 산하기관으로 개발도상국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발금융기관 - 녹색성장·기후 관련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자문 제공 등 활동 진행
글로벌녹색성장 연구소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을 위해 2010년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녹색성장 모델 제시
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GC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FCCC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각 국이 공여한 재원을 기초로 조성된 기금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지원
유럽투자은행	European Investment Bank (E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내 경제적 격차 해소, 균형발전 등을 목표로 '58년 설립된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금융기관 -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원 공급 등 친환경·탄소중립 분야에 지속적 투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 확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 위원회(FSB)에서 2015년 설립한 태스크포스(TF) -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 수립 및 기업의 기후변화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권고안 발표('17.6월) 등
S&P 글로벌 인텔리전스	Standard and Poor's Global Market Intellig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의 자회사로 금융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 수행 - ESG, 녹색금융 등에 대한 연구 수행, 데이터 수집·분석, 세미나 개최 및 자문 활동 수행
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조분쟁조정 등을 통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조화로운 시장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기관 - 조사·연구 진행 및 보고서 발간(그린스완 개념 제시), 중앙은행 감독기구 녹색금융 협의체(NGFS) 등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